

慶 第23回 韓·日·臺 作物保護協會 姊妹會議 祝  
 The 23rd KCPA · JCPA · TCPIA Sistership Meeting  
 2007. 10. 10 ~ 11 JEJU GRAND HOTEL



현장중계

제23회 韓·日·臺 3국 자매회의

# 지속가능한 작물보호산업 위해 공동노력 절실

한국작물보호협 주최 10.10-11 제주서, 대만 주최 차기회의 내년 11월 6일

**올** 해로 제23회를 맞는 한·일·대 3국 자매회의가 지난 10월 10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모두 38명의 공식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만) 주최로 열린 첫날 회장단 회의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의 3국 회장 인사에 이어 일본농약공업회(JCPA) Ryuichi Kubota 전임회장에 대한 공로패를 전달하고 3국 현황보고, 차기회의 일정 협의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KCPA 염병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식의 시대와 사회의 빠른 변화는 농약과 농산물의 더

높은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고,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등록 관리되고 있음에도 막연한 불안과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세계 농약산업은 최근 10년 동안 명목과 실질성장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장기적이고 뚜렷한 시장위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새로운 변화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3국 작물보호 업계의 여망에 부응하고 세계 농약산업은 물론 3국 자매회의의 미래를 열어나갈 진솔한 토론과 우의를돈독히 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CPA 井上克信 회장은 “농약수요와 신장은 둔



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비나 안전대책비 요구는 증대되는 등 사업경영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럼에도 건강지향과 먹거리 안전, 환경보전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어느 때보다 소비자 중심의 홍보활동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유연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鄭敦仁 TCPIA 회장은 인사말에서 “농산물 수출입이 급속히 증가한 가운데 농약잔류에 대한 엄격한 검사와 먹거리의 안전을 바라는 목소리가 빈번해지고 있어 국제간의 협조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강조하고 “특히 농업인 지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열린 세미나에서는 먼저 JCPA의 M. Hattori씨가 “일본 수생생물의 MRLs 설정”에 대해, TCPIA의 L. Gwo-Chen씨가 “대만 농산물 생산의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 KCPA의 바이엘 심재영 부사장이 “지속가능한 한국작물보호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 이튿날에는 3국 대표단의 친목과 돈독한 우의를 다지기 위한 친선 골프대회가 모두 28명의 3국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나인 브리지 Highland 및 Creek 코스에서 열렸다. 이날 친선 골프대회에서는 김인수(에스엠비티) 회장이 메달리스트상을 수상하였으며 임필훈(동방아그로) 전무가 우승을, 석창호(영일케미컬) 전무가 장타

상을, 윤재동(성보화학) 부사장이 근접상을, 이노우에(일본농약공업회) 회장이 행운상을, 홍성기(경농) 부사장이 우정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편 제24회 차기 3국 자매회의는 대만구식물보호공업동업공회(TCPIA) 주최로 내년 11월 6일부터 이틀 동안 대만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장소는 미정이다.

## ♠ 농업정세보고 ♠

### 일본-JCPA



### 2007주요사업 방향 및 활동상황

일본농약공업회(JCPA)는 2007주요사업 방향을 크게 다음의 6가지로 구분 진행하고 있다.

△「농약의 역할과 안전성」에 관한 대소비자 대화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 실시하며, △「잔류농약 관련 Positive List 제도」실시에 따른 식품산업의 동향 파악 및 공조까지 활동영역을 확대 △지방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지방지부와의 정보공유화 또는 제휴를 도모하고 정보네트워크를 확립하여 효과적인 정보수집 수단을 개발, 추진 △신청에서부터 등록까지 등록기간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농약관리법에 산업계 의견이 반영되고 적용대상작물 이외 작물에 적용되는 일괄잔류기준치가 재수정될 수 있도록 진행 △경제산업성, 일본무역진흥원(JETRO) 및 중국 등과 연계,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 일본 농약기업의 경제적 손실 경감을 위해

노력 △농약업계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내부통제(Compliance)·책임있는 사업(Responsible Care)·책임의식(Stewardship) 분야의 정비」를 촉진하며 그에 대한 「실천촉진책」을 검토 △국제조약이나 국제기관 권고 등이 일본 내 관련법령에 도입됨에 따라 대응에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외농약관련정보 등의 파악 체계를 정비한다.

### 〔사무국의 업무강화와 효율화〕

사무국의 업무 강화 및 효율화를 추진하였으며 보다 나은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위원회 조직을 재 수정하였다.

사무국을 위해서는 주간보고 및 품의제도, 회의개요 제도를 도입하였고 주변환경과 효율화를 고려 업무분장을 개정하였으며 사무국 업무 매뉴얼도 수정하였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는 기본적인 역할을 변경하지 않고 회의 빈도를 줄이는 동시에 보고의 장이 아닌 실질적인 토론의 장으로 형식을 변경하였으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며 관련 대응 안을 위원회 스스로 책정하도록 변경하였다.

### 〔Positive List 제도 대응〕

Q&A 작성 소비자나 농가의 질문에 대하여 각 회원사에서 동일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공업회의 기본적인 고찰방법 및 답변 시 반드시 유의할 사항 등을 정리, 회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Drift 잔류시험 실시 살포시 조건에 따라 미 적용대상 작물에 대한 잔류실태(감소 양상)가 불분명하고, 일괄잔류기준을 초과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지역에 따라 분제 등의 사용억제 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표적인 16가지 농약과 시금치를 공시하여 Drift 농약잔류 실태 시험을 실시하였다.

수도등록 농약의 논물 기두는 기간 변경 하천

수중의 농도 문제를 고려, 일본농수성이 논 제초제와 본답 입제의 논물 기두는 기간을 7일 이상으로 연장. 일본공업회에서는 관련농약의 라벨을 변경하고 팜플렛 25만부 및 포스터 1만2천매를 작성, 지도기관 및 농약 유통업자, 농가에 배부하였다.

어패류 잔류농약기준치 설정 협력 일률기준치 0.01ppm을 초과하는 조개의 잔류분석 결과가 공표, 어업관계자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어패류에 대한 일률기준치 적용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신문보도가 이어져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어 3개 관련기관과 협의, 어패류에 대한 적절한 기준치를 설정하는 데 합의하였고 현재 후생노동성 등에서 작업을 추진되고 있다.

### 군마현의 유기인계 농약사용

2006년 3월 국회에서, 유기인계 농약의 위해성을 제기, 군마현에서는 유기인계 농약의 항공 살포 제한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농수성은 유기인계 농약뿐만 아니라 등록된 모든 농약은 각종 독성시험성적에 근거한 위험평가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3년째 재등록 때에도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무런 문제없다는 견해를 표명한 후 이후에도 새로운 지식 축적과 정보 수집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JCPA에서는 유기인계 농약의 안전성에 대하여 농수성과 동일한 의견을 표명하고 유기인계 농약이 만성 신경장애를 일으킨다는 내용에 대해 과학적인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구결과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최근 논문에서는 「사람에게 유기인계 농약의 소량 장기누출이 신경계나 말소신경계 쪽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부각, 군마현과 마스크에 항의, 반론을 제기하였다.

## 지적재산권보호, 민관합동 중국방문단 참가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는 회원의 권익에 더없이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까지는 경제산업성의 「아시아 산업기반 강화사업 : 데이터보호제도에 관한 실태조사」에 협력하고 CropLife China와 연계하여 활동하여 왔다.

또 2006년부터 IIPPE(국제지적재산권보호포럼)가 주최하는 민관합동 중국사절단에 참가하였고 임시등록제도 폐지 및 특허권 침해 농약 수출금지, 무등록 농약 단속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 소비자 대상 「농약세미나」지방 확대

본부에서 주최하던 「농약세미나」는 2005년부터 지부에서 개최하고 있다. 2006년에도 4회 연속 지방에서 개최하였으며 참가자 중에는 처음으로 농약의 필요성이나 안전성을 알게 된 사람도 많았다. 현재까지 지부주최 세미나는 8회였다.

## 대만 - TCPIA



## 농약관리법 개정

무등록농약(제조, 가공, 수입, 판매 포함) 및 중앙정부의 한도량 규정을 초과한 농약에 대하여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및 신대만 화폐 50만위안(한화 약1500만원) 벌금을 부과토록 개정하였다. 무등록 혼합제와 같은 고의적 약제와 제조과정에 따른 기계청소에서 기인한 비고의

적 오염에 대한 구별이 없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행정당국은 또 소면적 작물의 방제약제 부족 해결을 위해 발작물의 약효, 약해, 잔류시험으로 실정에 맞추어 적용확대를 승인할 수 있다. 정부는 11종 박과채소류의 21개 농약, 6종 과채류의 17개 농약, 24종 소엽채류의 39개 그리고 11종 광엽채류의 27개 농약에 대하여 발작물에 대한 약효, 약해, 잔류시험 면제를 발표하였다. 이는 방제약제 부족을 해결하고 생산이력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나, 라벨에 표기할 수 없고 Green Book에 등재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농약등록신청에서 발작물 시험은 정부가 총괄 실시하였으나 금번 법 개정으로 등록업자가 발작물 시험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기간이 과거 3~5년이었으나 6개월~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 내 자격을 갖춘 시험장이 부족하고 당국에서는 신청 가이드 라인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농약제품 바코드 도입

행정원 농약위원회에서는 4년 계획으로 「농산품안전관리 정보응용체계 중장기 계획」을 제정하였다. 이 계획에는 농약제품의 바코드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대만 우수농산물관리제도(TGAP) 등의 법규를 전자정보체계에 부합시켜 농산물 생산, 판매이력 추적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내외에서 접속 가능한 전자 기록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완벽한 방역 및 검역제도를 건립하며, 농약 및 비료 사용, 병해충, 재배방법 및 유통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안전 응용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Y